

9월 17일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킵시다

2023 제90회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자료집

WAKE
UP!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 목회서신

2023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 목회서신 | 이철 감독회장 03

● 설 교 문

다음세대의 신앙교육 | 김동수 목사 06

● 예 배 문

어린이 예배와 설교,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고상원 목사 10

● 교육자료

교회학교 부흥을 원하십니까? | 서승원 목사 18

다음세대를 위한 게임복음전도 | 서승원 목사 24

세상과 교회를 잇는 복음의 다리, 가스펠 브릿지 | 민선기, 오광훈 전도사 27

작은교회의 교회학교 세우기 | 김도형 목사 29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 고상원 목사 34

큐티로 연합하는 청년 | 송현태 목사 40

강남선한목자교회 사례를 통해보는 세대통합예배 | 엄재현 목사 45

건강한 교회 문화가 전 세대의 부흥을 이끈다 | 박형민 목사 50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회의 변화 | 박인선 목사 58

선명한 목적이 이끄는 교회교육 | 정지혜 목사 61

녹색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픈 의성서문교회 | 이혁 목사 69

2023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 목회서신

이철
감독회장

2023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아 다음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와 헌신하는 교사를 비롯한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제정하여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 교단적인 힘을 모아가는 모범교단입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희망을 열어가고, 교회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세대없이 교회의 내일이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새로운 세대의 눈으로 볼 때 이미 낡은 문화 취급을 받고 있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세속화의 진행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급감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교회학교의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에 다음세대에 대한 선교적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교회적 관심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올해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다음세대 선교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헌신을 하는 기회로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현실은 대부분의 교회가 직면한 위기증세를 반영합니다. 다음세대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고, 다음세대에 투자하지 않는 교회는 내일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어우러지고, 연륜과 패기, 전통과 비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열심히 미래세대들을 전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일은 우리 교회를 푸른 교회로, 푸른 신앙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다음세대를 살리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올해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위해 특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관심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백지에 그림을 그리기 보다 누군가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에서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델교회들을 발굴하여 소개합니다. 교사기도회, 교사성경통독, 세대통합예배, 지역사회를 섬기며 부모님들에게 다가가는 교회 등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교회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모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묵묵하게 다음세대를 위해 걷고 뛰는 교회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어 소개합니다. 소개된 교회들과 서로 연락하여 협력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우리 감리교회의 다음세대는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 부흥의 열쇠는 교사

무엇보다 교사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학교의 부흥은 교사를 발굴하고 세우는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을 이끌어 가는 가장 큰 에너지인 믿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 어떤 유행을 쫓아 다니는 것도, 다양한 교과과목을 가르치는데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장성함은 무엇으로 측정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육은 지식이나, 학력성취 이전에 사람의 실존 속에 성숙한 사랑, 예수의 인격을 새겨 넣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분들을 찾아 교사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세대 살리기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9월 17일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이 지난 후 19일(화)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다음세대 살리

기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목회자, 교사,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도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협력하는 교육축제마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모든 감리교회가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킴으로써 언제나 초대교회와 같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사랑하는 다음세대들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키는 일은 다음세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세대의 눈으로 오늘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다음세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여 우리 감리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세대의 신앙교육

사사기 2장 6-10절

⁶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⁷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⁸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⁹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¹⁰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김동수 목사
주일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보다 10년 후가 좋은 교회, 10년 후보다 20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믿음의 다음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내용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인가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목회자와 한국교계 리더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문은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각 교회 담임자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목회 키워드는 무엇인가?’였습니다. 대답의 우선순위는 ① 다음세대 ② 지역사회 ③ 본질(핵심가치) 순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교회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다음세대, 즉 후손들의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한 분명한 비전과 로드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구약 사사시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300년의 특징은 한마디로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 세대단절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사회,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어두움의 시대, 절망의 시대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여호수아 시대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2세대의 시기에는 모세의 신명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선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모세가 잘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음세대를 위한 신명기를 남긴 것입니다.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말씀 교육자료(Text)를 남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정착 초기,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그들에게 그 땅은 축복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가나안정착 2세대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와는 달리 다른 세대였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사시대는 신명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교육할 말씀 교육 자료(Text)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정복과 정착에만 올인 했고,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후손들의 신앙 교육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들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다른 세대들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의 이들의 삶을 ‘말씀의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삿 17:6, 18:1, 19:1, 21:25)’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에 있어 전혀 다른 세대가 된 그들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흡수, 가나안의 우상숭배, 가나안 사람들과의 잡혼(雜婚) 등과 같이 자기 정체성을 잃은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실패와 고통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은 저주와 고통의 땅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실패입니다.

한국교회 지난 30년간은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 인구 1,200만을 자랑하던 시기였습

니다. 그러나 2023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는 몰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교회 성도의 60~70%는 노인세대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은 교회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교회학교 어린이가 1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약 4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교회가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례로 제가 감리사로 섬기고 있는 안양 지방회에도 자체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28개 교회 중 2~3교회에 불과합니다. 첫째는 어린이가 없고, 둘째는 교사가 없고, 셋째는 조직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영광의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요, 한국교회 몰락의 시대는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사시대를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교육의 내용

그렇다면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제자들을 무슨 내용으로 교육해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10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사시대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목표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빠진 그들의 인생은 자기생각, 욕심,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준과 원칙이 없으니 당연히 뒤틀리고 깨어진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와 교사들은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참석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예배 및 양육 모임, 여름-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교육은 자녀에게 평생 축복이 된다는 것

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태인의 0.2%의 위력을 아십니까? 세계인구의 0.2% 밖에 안 되는 유태인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그들의 쉐마(Shema)교육에 있다고 말합니다. 쉐마(Shema)교육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4-5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에 바탕을 둔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만드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태인이 시련과 고난의 역사속에서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다음세대를 키워 냈던 것입니다. 그 신앙교육이 유태인의 파워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2.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 시대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에 보면 그들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향락과 음란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10명 중 3~4명은 음란물을 수시로 접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그 중 10%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면 어느 한 순간에 향락과 음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급속히 침체와 몰락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제자들 또한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죄악의 길,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의 희망, 자녀들의 희망은 바로 ‘신앙교육’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후손들로 키워내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는 일, 그래서 삶의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과 기준을 갖게 하는 일, 이것만이 교회의 희망이요 가정의 희망입니다.

어린이 예배와 설교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상원 목사
예수소망교회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다음세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임과 유튜브, SNS 등을 통하여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점점 더 교회보다 세상의 재미를 쫓아 가려고 합니다. 이에 맞추어 교육부서의 사역 방향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영상들을 패러디하여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혹은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아이템을 선물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재미를 따라가며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사랑을 받는다 생각이 들 때 교회도 나오게 되고, 교회를 와야 말씀도 듣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미만으로는 아이들의 영혼까지 깨울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들의 영혼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내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을 경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드릴 때에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90주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팀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학교 앞 전도가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우르르 몰려 나가서 솜사탕 만들어주며 전도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학교 앞 전도를 하면 강하게 반대하고 때로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학부모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음세대 전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은 세워진 팀의 아이들과 그들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가게, 분식집에서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인사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팀 아이들과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매주 나가다보면 친구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눈에 띄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가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아이들과 관계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 한 아이의 드림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보잘 것 없지만 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 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음세대의 영혼이 깨어나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1.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

- 2주전 : 아이들 중에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학교를 위해 전도와 기도를 해보고자 하는 아이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 1주전 : 아이들과 함께 팀 이름을 만들고 함께 전도와 기도를 할 장소(학교앞 또는 학교근처 특정장소)와 시간(주 1회, 요일 및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복음메시지와 전도훈련, 기도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전도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

2. 사역팀 발족식을 위한 준비물

- 예배전 : 전도팀 소개 영상 또는 PPT 화면 준비, 사역팀 임명장

3. 예배 순서

경배와 찬양 **다함께**

“오늘은 90주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멘트 후, 어린이 대표가 보리떡(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앞으로 가지고 나와 강대상에 준비된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 어린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으로 3~4곡(15분) 찬양한다.

사도신경..... **다함께**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대표기도..... **교육 부장**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90주년 기독교교육진흥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 큰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다음세대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교회와 다음세대가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붙잡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해 주세요.

특히 오늘 예배시간에 아이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학교와 친구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아이들의 결단을 주님께서 받아 주세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자신의 것을 드리며 나아가갈 때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헌신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 하시고 사랑 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소식..... **집례자**

발족식..... ○○팀(아이들이 만든 팀 이름) 발족식..... 집례자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준비된 전도팀의 발족식을 진행합니다.

1. ○○팀 사역 소개

- PPT화면이나 준비된 영상을 통하여 ○○팀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 이 팀은 매주 ○요일 ○○시에 ○○○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 ○○팀원 소개

- 팀원들은 앞으로 나와 회중을 바라보고 섭니다.
- 집례자는 ○○팀 팀원들을 한명씩 호명하여 소개하고 회중은 박수로 환영합니다.

3. 발족식

- 임명장 수여 : 담임(교육) 목사가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 축복(중보)기도 :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워진 ○○팀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 담임(교육) 목사가 기도로 마무리 합니다.
- ○○팀은 그 자리에 서서 바로 특송을 합니다.

특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팀

새롭게 세워진 ○○팀이 특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봉독..... 요한복음 6장 9절 - 13절 집례자

설교.....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담임(교육) 목사

합심기도..... 다함께

결단 카드 작성 다함께

○○팀으로 세워진 아이들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돕니다.
그 외에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님께 드릴 오병이어를 찾아 실천하며 드

릴 수 있도록 결단 카드 작성을 돕는다.

(예를들어, 친구가 없는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기, 형제에게 간식 사주기, 학교에서 식사 전 기도하기,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기 등)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지 기도하며 생각나게 하고,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나아가도록 결단 카드를 작성하게 한다.

*작성한 결단 카드는 봉헌 시간에 봉헌함에 함께 넣도록 한다.

*** 봉헌 및 봉헌찬양**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함께**

오늘 헌금시간은 역사적으로 귀한 전통을 기억하며 구별된 봉헌을 드립니다.

1933년 주일학교진흥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기독교교육진흥주일에는 온 성도가 함께 신앙교육의 진흥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1전(錢)씩 헌금했던 전통이 기독교대한감리교회에 있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다음세대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신앙교육의 진흥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과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러진 예물은 기독교교육진흥과 오늘 발족한 ○○팀의 사역과 운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 봉헌기도** **말씀이**

*** 축도** **담임(교육) 목사**

4. 설교 -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⁹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¹⁰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¹¹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¹²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¹³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달고나 좋아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어렸을 적에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쯤은 먹어봤죠? 맛도 맛있는데 저는 모양대로 부시는 재미가 너무 재밌습니다. 목사님 어릴 적에는 그 모양을 맞추려고 침으로 녹여가며 먹기도 해봤고, 바늘같이 날카로운 것으로 콕콕 질러서 만들기도 해봤어요. 그때는 모양대로 만들면 한 개를 더 쫓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고나가 무엇으로 만드는지 알아요? 맞아요. 설탕으로 만듭니다. 국자에 설탕을 한가득 넣고 불에 녹입니다. 그런데 설탕만으로는 달고나를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식소다 예요. 베이킹소다라고도 하는데 보통 빵이나 쿠키 등을 구울 때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달고나에서도 녹인 설탕을 부풀게 하는 역할로 사용합니다. 달고나 하나 만들 때 얼마나 필요할까요? 설탕은 몇 스푼을 들퍩 넣지만 식소다는 젓가락으로 아주 조금 찍어서 넣기만 해도 됩니다. '에이 고작 그 정도면 넣으나 안 넣으나 크게 상관도 없겠네요.' 싶을 정도로 아주 조금만 넣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양의 식소다가요 설탕물을 점점 부풀어 오르게 하더니 맛있는 달고나를 완성시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고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열두 바구니나 되었던 놀라운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배가 너무나 고픈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는데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내려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자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한 번에 많은 떡을 구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오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데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들 자기의 생각대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적이 있나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건 예수님도 못하셔'라고 단정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았던 적은 없

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모든 작업들을 다 해놓고 딱 한 가지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설탕을 다 녹여 놓고 식소다를 넣어주길 기다리고 계신 것과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께 전달하면서 한마디 붙입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오천 명을 먹이기에는 코딱지만큼 적은 양이에요. 제자들은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십니다. 눈곱만큼 작게 잘라서 나눠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쫘데요. 무한리필이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열두 바구니가 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던 아주 보잘 것 없던 것이, 오천 명을 먹여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한 아이. 한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셨어요.

오늘은 90주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이예요. 이 날이 처음 시작할 때 신앙교육과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 갈망하는 마음으로 1전을 헌금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리에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줍지도 않죠? 1전이 100개 모여야 10원이 됩니다. 그 당시 가치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큰돈은 아니었습니다. 에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헌금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1전으로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다음세대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팀 발족식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할 수 있어요.

‘어린인들이 전도한다고 과연 몇 명이나 전도되겠어?’

‘몇 명이 학교를 위해 기도한다고 학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을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 그 결단을 누가 기다리고 계신 것인데요? 맞아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한 아이의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기로 한 친구들의 결단이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도로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그것을 드리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999년 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캐시버넬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예수님을 믿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대답으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고 많은 동급생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캐시버넬처럼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나라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국기계양대 앞에서 기도모임을 시작합니다. 처음 모임은 겨우 몇 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생각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몇 명의 헌신과 순종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드린 오병이어가 나중에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많은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주님을 위해 모이고,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적은 인원이 드린 오병이어의 모습은 보잘 것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 세워지는 ○○팀의 모습도 비슷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아이를 통해 오천 명을 먹이셨듯이, 몇 명의 결단으로 미국을 넘어 전 세계 학교 복음화를 일으키셨듯이,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 다시 한 번 오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원하십니까?



서승원 목사
방주교회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교회학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교회학교 전도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방주교회(삼척)는 2004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호산항에 위치한 강원도 끝자락에 서승원목사가 개척하여 19년 된 교회입니다. 성전 20평의 작은 교회로 80세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 두 분과 아동부 아이들로 시작한 방주교회는 현재 교회건물 400평, 80여 명의 성도와 30여 명의 아동부가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방주교회는 아동부 사역을 시작으로 자연스레 청소년, 장년 등이 전도되어 순차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시골교회 특성상 수평적 이동이 아닌 한 영혼이 전도되어 세례교인이 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호산리에는 이미 70년된 같은 교단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 개척하기 쉽지만은 않았습니 다. 호산리는 2000년도 대형 산불로 주 수입원인 송이버섯 채취가 불가능해지고 바닷고기 어획량도 절반 이상으로 줄면서 가정마다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상처 입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백일도 안된 첫 아이를 둘러업고 마을 아이들을 위하여 떡볶이를 만들고 라면을 끓이고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15

평 사택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두려운 눈으로 우리를 경계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잘 해주세요?” 초등학교 여자아이의 질문에 “너희들이 좋아서”라고 대답하고 몇 일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나의 목회의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듯이 내가 아이들에게 잘 해주는 이유도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알아준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문제집도 풀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20명이 넘자 더 이상 작은 사택만으로는 부족하여 작은 컨테이너 하나를 구입하여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시청에서 찾아와 무료공부방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동센터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기에 빛을 내어 중고 조립식판넬을 구입하여 교회 2층에 35평의 교육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삼척시에서 지원하는 약간의 지원으로 아이들의 간식은 해결할 수 있었고 사비를 털어 아이들의 문제집을 구입하고 본격적인 아이들의 공부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아이들의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맡기려고 예배에도 보내주셔서 아동부가 3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개척 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빛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19년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자리 채우기만 연연한 결과 동물의 약육강식 세계처럼 힘세고 크고 강한 교회만이 살아남고 힘없는 작은 교회들은 지탱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시스템, 환경, 조건, 조직적인 인프라 등은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은 힘을 지녔습니다. 어른들의 전쟁에 아이들은 희생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에서 보았듯이 진짜 엄마는 엄마의 자존심이 아닌 아이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가르친 대로 했으며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웠습니다. 최근 이슈화된 교권침해 문제 역시 어른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시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지 세상에 빼앗긴 아이들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지 온 교회들이 연합하여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1.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 심지어 눈빛에도 예민합니다. 부모가 다툼 것 같으면 눈치를 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감정이 어른들에 비해 둔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만 아이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감각이 예민합니다.

교회에서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을 전도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를 위한 목적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이들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즉 아이들은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마음을 엽니다.

나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눈빛, 웃음, 과자 한봉지 속~~ 이런 진심을 담은 작은 행동으로도 사랑의 표현은 충분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이의 작은 표현도 놓치지 않고 경청합니다.

2. 아이들을 위하여 예산을 풍족하게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하여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비싼 선물을 사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학교에 중요성을 두고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야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학교 부흥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열 번의 설교보다 두 배의 예산 증액이 더 확실한 교회학교 부흥을 돕습니다.

3. 아이들을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8)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사는 어린아이를 잘 섬겨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섬김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오니라”(마태복음 18:5~6)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듯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환대하며 섬겨야 합니다. 섬김의 가장 좋은 자세는 경청입니다. 우리의 몸을 기울여 아이들을 향하여 들으려 할 때 섬김의 완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4.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한복음 15:15)

친구와는 마음이 통하고 공유하고 숨김이 없고 편안합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를 찾습니다. 친구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사정을 다 알기에 공감해줍니다. 친구는 같이 울어주고 함께 깔깔대며 웃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비밀이 생기고 신뢰의 관계가 생기면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라포’라고 합니다. 진정한 라포형성이 된 친구입니다.

5.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합니다.

어릴적 교회를 생각해보면 교회는 재미있었습니다.

말타기 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등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놀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할까요? 선생님과 놀이할 때입니다.

올해 여름성경 둘째 날 고학년들과 1박을 하면서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 이름 대기!”와 손

으로 수건돌리기 등 옛날 게임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재미있어하고 자기들끼리도 다시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아이들이 달려와야 합니다. 재미 있는 얘기 해주세요. 놀아주세요! 같이 놀아요! 방주교회 저학년 아이들은 담임목사인 나를 개그맨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과 있을 때 난 아이들의 개그맨이 됩니다. 목회자라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무엇할 때 재미있어하는가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교사 발굴 어떻게 하나?

아이들이 자라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 발굴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교회의 도움을 받아 잠깐의 이벤트는 할 수 있으나 교육은 성실함으로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전도사나 부목사가 있는 경우는 교사의 모집이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는 교사로 봉사하려는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동부부터 잘 키워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학교를 거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 교회에서 자라 교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방주교회 교회학교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TIP

1. 무료 공부방, 아동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와서 학원에 갑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학원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습보다 돌봄에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보다 퇴근이 늦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게 되면 부모의 귀가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매일 교회에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책 읽어주거나 숙제를 봐주거나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면 채점해주고 간단한 간식 또는 저녁식사도 같이 합니다.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성도들과 돌아가며 헌신하면 됩니다. 매일 교회를 오면 당연히 주일도 오지요. 거의 가족 같아집니다.

2. 달란트시장

방주교회 아동부 프로그램 중 지속해서 해왔던 프로그램이 달란트시장입니다.

- 1) 년 3회 정도를 합니다. 4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 2) 물건은 동대문시장까지 가서 사옵니다. 아이들이 처음 보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로 1회 약40만원 정도를 삽니다.
- 3) 달란트는 출석:100 성경책:50 요절:50 친구전도:50 청소년전도:1000 어른전도:2000
- 4) 좋은 물건 몇 가지는 경매에 부쳐 팝니다.
- 5) 판매 물건에 절반 정도만 나갈 수 있게 계산합니다.
- 6) 달란트는 남기고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가족 초청 프로그램을 합니다.

■ 성탄절 이브 발표회

발표회 준비를 3개월간 합니다. 학예회 수준을 넘어 수준 있게 준비합니다.

■ 가족 체육대회

전교인이 잘 준비한 어린이 가족 초청 체육대회를 합니다.

■ 지방회 체육대회 적극 참석

아이들의 부모들을 초대하여 교회 대표로 세우고 매년 행하는 지방회 체육대회를 약 3개월 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부모들은 교회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 1박 2일 가족여행 또는 아빠 어디가~~ 등

다음세대를 위한 게임복음전도



서승원 목사
서로사랑교회

다음세대 게임복음전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하교시간에 다음세대들에게 게임이라는 매개를 통해 복음을 들려주는 전도입니다.

다음세대 복음게임전도의 핵심장점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접근성입니다.

<교회 밖 교회>

현재 한국교회는 다음세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복음을 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교회 담은 무척이나 높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숫자는 10명중 7명에 육박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복음의 접근성이 다음세대에게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교 시간에 학교앞에서 게임복음전도를 통해 높은 장벽을 무너뜨렸다. 앞으로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밖 교회를 만들어 가야한다.

두 번째 관계성입니다.

<친밀한 관계형성>

다음세대를 살려내려면 목숨을 걸어야한다. 故은준관목사님의 말씀처럼 다음세대 사역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교회는 다음세대 사역을 쉽고 가볍게 접근한다. 다음세대복음게임전도는 목숨을 건 전도이다!

왜? 목숨을 걸어야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다음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 사회에 녹아 닳아없어지는 역할을 통해 많은 생명을 거두게 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학교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음세대들과 관계형성에 사실상 접촉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교앞 복음게임전도를 통해 우리는 다음세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반복성입니다.

<다시복음앞에>

다음세대 복음게임전도는 나눠주는 전도를 추구하지 않는다! 왜? 나눠주는 전도는 복음이 도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세대게임전도는 약 5분정도 아이들에게 선명한 내가 죽은 십자가 복음을 제시한다! 그래서 보통 한 학기에 한 친구가 복음을 듣는 횟수는 50번 정도 된다. 학교 앞 현장에서 네 부류의 아이들을 만난다.

첫 번째,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아이들.

두 번째, 교회 다니다가 안다니는 아이들.

세 번째, 타종교나 이단을 믿고 있는 아이들.

네 번째, 현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모두 복음을 들어야 한다!

5분이라는 시간 속에 질문과 답을 통해 반복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

네 번째 도달성입니다.

현재 다음세대 사역은 행사중심이다. 결국 행사를 통해 쉽게 교회를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쉽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다음세대 복음게임전도는 학교 앞에서 적게는 30~70번 정도 복음을 듣고 복음의 뿌리가 내린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지만 어렵게 교회에 도달하게 된다.

교회에 어렵게 도달하였기에 더 이상 쉽게 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다음세대복음전도 봄 & 가을시즌 컨셉

<봄학기> 추억의 뽑기게임(공짜)

요즘 다음세대들이 추구하는 트렌드 굿즈가 있다. 매대에 진열하고 뽑기게임에서 뽑는 등수에 따라 굿즈를 선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가을학기> 십대라면(공짜)

요즘 다음세대들은 학업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다. 그래서 매대에 한 가득 불닭볶음면을 쌓아놓는다. 복음을 들으면 라면 한 개를 선물로 나눠주고 있다.

<VR 성지순례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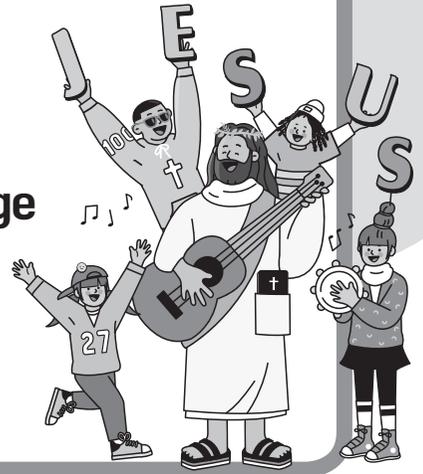
복음을 이미 수십번 들은 아이들은 VR 성지순례게임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맺음말

현재 안양에서 시작된 다음세대 복음게임전도는 성남, 화성, 안산, 수원, 동탄, 김포, 천안, 청주, 전주 등 초교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하교시간에 복음을 듣는 다음세대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우리 다음세대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세상과 교회를 잇는 복음의 다리 가스펠 브릿지 Gospel Bridge



민선기, 오광훈 전도사
반월중앙교회

1) 아이들에게 흥미를 더하다. “다음세대 게임전도”

- 매주 목요일,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서 다음세대 게임전도 실시
- 다음세대 게임전도 “팡 없는 뽑기게임”은 아이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데 있어서, 흥미는 더하고 거부감은 낮춘다.
- 아이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는 첫 번째는 “교회가 자신에게 흥미로운가?”이다.



2) 흥미 속에 복음을 전하다. “복음 제시”

- “팡 없는 뽑기게임”은 초등학교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조건 할 수는 없다.
- 반드시 “복음 제시”를 받고 온 아이들만이 팡 없는 뽑기게임을 할 수 있다.
- 흥미로운 곳에 왔다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하고 알게 해야 한다. 어떤 아이에게는 복음을 듣는 이 순간이 그 아이의 예배일 수 있다.

3) 복음 속에 관계를 만든다. “관계 형성”

-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며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
-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결국 “관계”에서 비롯된다.
-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주일예배까지 인도된다.



복음제시

주의사항

- ① 반드시 5분내로 실시 - 아이들의 집중력
- ② 최대 3-4명으로 제한 - 아이들과의 관계형성

삶으로 예배드리는 반월중앙교회 청소년부

1) 가까운 학교와 가까워진다. SSG(School Salvation of GOD)

-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에게 썩 구원이 다가간다.
- 리더십있는 아이들 혹은 교내 선생님을 통해 학교 내 기독교 모임을 만든다.
- 학교 내 기독교 동아리 모임을 통해 동네 아이들과의 접점을 만들어준다.
(학교 및 학교 선생님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신뢰도 상승)

2) 온 마음 다해 아이들과 함께 한다.

- 귀찮고 힘들고 부담되는 일정들을 계속 만든다.
ex) 주중찬양예배, 학교 앞 전도, 노방전도, 작정선교헌금, 졸업식 방문 등
- 새로 등록한 아이들이 정착한다면, 찾아가서 부담되지 않는 선물을 준다.
- 교역자 및 선생님들의 진실된 모습과 헌신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기억한다.



정착율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2023년 7월 30일 기준 새가족 61명.

작은 교회의 교회학교 세우기!



김도형 목사
함께하는교회

작은 교회가 교회학교를 꿈꾸다.

개척의 꿈을 꾸고 카페교회를 개척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커피를 볶고, 카페에서 6일을 근무하며 주일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는 큰 교회처럼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정된 인력, 뼈대한 재정으로 인해 모든 사역과 사업을 규모있는 교회만큼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지요. 아마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담임목회자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합니다. 한정된 인적자원과 재정으로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의 모습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젊은층을 전도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 카페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관계맺고, 전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척하고 1년이 채 안된 2015년 미국에서 조카들이 한국에 와서 1년가량 머물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조카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삼촌이 개척한 교회에 나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지내던 중 어느날 조카가 물었습니다. “삼촌, 왜 어린이 예배는 없어요? 우

리 예배가 있어야지요!” 조카의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등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냐?’ 아니면 ‘한 사람의 예배자이냐?’ 선택과 집중을 택한다면 어린이 예배는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자를 택하면 한 사람의 예배자를 위해 헌신하는 결단일 것입니다. 사실, 작은 개척교회에서, 인적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학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래서 더 큰 고민에 빠졌던 것이지요. 기도와 고민의 시간을 가진 뒤 결국 ‘한 사람의 예배자’를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개척하고 1년만에 교회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교회학교가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린이의 절대적인 숫자도 줄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길 원하는 이도 더 줄었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섬기고 일하기보다 누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작은 교회가 어떻게 교회학교를 세워가는지 ‘함께하는 교회’의 사례를 통해 중요한 세 지점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회학교의 시작!

1.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하라! : 행함

함께하는 교회 교회학교는 2015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교회학교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먼저 문제가 된 것은 ‘공간’이었습니다. 카페교회로 개척했기 때문에 공간은 오직 14평 카페밖에 없었습니다. 8-9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함께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식사후 카페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어린이 예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어린이 예배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카페는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기엔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마땅히 없었고 결국, 교회학교 예배는 소래포구의 가장 오래된 작은 빌라, 저희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에 자석으로 된 교회 포스터를 붙여 ‘예배당’임을 알렸고 11시 예배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어린이들은 저희 집으로 이동하여 어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카 둘을 합쳐 4-5명이 예배드렸습니다. 좋은 조건, 인력, 풍부한 재정으로 교회학교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



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그곳이 집이든, 공원이든, 학교이든 아무 상관없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학교와 어린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 헌신한 것은 저희 아내이고, 단 한 명의 교사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학교를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며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고 다 따져봤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시작하면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없고, 어린이가 없고, 장소가 없으며, 재정이 없지만 시작하면 됩니다. 최고의 예배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귀한 예배자가 있고, 가장 좋은 환경의 교육관은 아니지만 예배드릴 장소가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사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의 사명자가 있었고, 풍성한 재정은 아니지만 늘 필요만큼 채워지는 신기한 재정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일수록 시작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의미가 됩니다. 놀라운 포인트, 교회학교는 시작할 때 이뤄집니다.

2. 작을수록 모두가 함께한다! : 섬김과 훈련

작은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어린이 예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하고, 가르치면 성도들은 조금씩 따라옵니다. 그리고 배우고 깨닫게 된 부분을 어린이 예배와 행사때에 적용하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지 배워나갈 수 있으며, 그렇게 가르친 곳에서 직접 훈련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함께하는 교회의 어린이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드렸지만, ‘달란트 잔치’같은 행사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학교에서 훈련받고 어린이들을 섬기며 일하도록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학교의 모습은 성도들의 성장과 연결되어 섬





김의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줍니다.

특별히 ‘달란트 잔치’를 할 때는 후속적인 행사와 연결했습니다. ‘차이나타운 체험권’을 판매하고 정해진 날에 차이나타운을 방문하여 함께 여행하도록 지도합니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권’을 판매하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체험하며 함께한 성도들이 추후에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는 ‘예비 교사’가 됩니다.

3. 교회의 정체성을 확보하라! : 예배와 전도

교회학교가 제대로 자립하려면 온전한 교회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예배에 있어 어린이를 이해하고 어린이의 시선에서 준비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과 유튜브의 접촉이 많은 아이들에게 그에 맞는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섬겨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냥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행했습니다. 교육국 교재, 히즈쇼, 어린이 전도협회 등 어린이 예배에 특화된 전문적인 교재와 프로그램을 착실히 배우고 익혀서 적용했습니다. 다행히 설교부터 찬양, 영상자료까지 다 준비되어 있기에 미리 준비만 하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학교의 정체성은 예배와 함께 ‘전도’로 세워야 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의 ‘새소식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를 알리거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교회에 오도록 홍보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 십자가와 대속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도는 교회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도 프로그램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전도의 자리를 통해 교사들이 ‘전도는 어렵다!’는 선입견이 바뀌

고 복음과 본질로 훈련받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통해 교사들은 무엇이 사명인지, 무엇이 전도인지 훈련받았고, 이렇게 교회학교의 정체성이 교사들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어 저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더 큰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해보니 전하는 사람의 복음이 더욱 분명해졌고, 아이들에게 가르쳐보니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교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 교회학교는 예배와 전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교회학교가 더욱 풍성하고 활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8년전, 작고 오래된 빌라에서 4-5명과 함께 시작한 교회학교가 조금씩 성장하여 2023년 여름성경학교에는 20여 명의 어린이와 1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함께 섬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시작하면 이루시고, 전하면 듣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열매가 맺혀졌고, 새로운 아이들이 그레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교회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세워야 합니다. 작은 예배자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상원 목사
예수소망교회

1. 예수소망교회 소개

-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연회 의정부동지방 예수소망교회
- 2011년 설립
- 2016년 5월 3대 담임자로 고상원 전도사 부임
- 2021년 3월 제이하트 선교단체 설립

2. ver. 1.0

학교 앞 전도

2017년 학교 앞 전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다음세대 사역의 첫 걸음은 어린이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학교 앞 전도는 같은 시간에 꾸준히 나가다 보면 한 달이면 금방 관계가 생긴다.

학교 앞 전도를 시작했을 때 주변 목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과감하게 교회에 컴퓨터를 4대나 설치하였다. 어린이들이 하교 후에 누구든지 편하게 교회에 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만들

었다. 또 학교 앞 분식집과 제휴를 맺고 500원짜리 쿠폰을 만들어서 나눠줬다. 아이들은 매주 목요일이면 학교가 끝나자마자 그 쿠폰을 받고자 젓 먹던 힘을 다해 달려왔다. 분식집 앞에서 만난 친구들은 교회까지 오기도 쉬웠다. 이후 교회에 한번 왔던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친구들을 스스로 데리고 왔고 주중에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는 아이들은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2017년 4월, 교회학교 예배가 세워졌다. 한 가지 특별했던 것은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모두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학교 앞 전도의 형태는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때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은 전도자의 마음이다. 정해진 정답은 없다. 전도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전도면 다 좋다. 어떤 목사님은 매일 아침 기타를 들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응원한다. 필자의 경우 운동을 좋아하기에 학교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과 운동을 한다. 물론 함께 운동한 아이들이 무조건 교회 오는 일은 없다. 작년에는 아무런 열매 없이 일 년이 흘러가기도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가다 보니 올해는 몇몇의 새 친구들이 전도되었다. 작년은 눈에 보인 열매는 없으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이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 졌으리라 믿는다.

3. ver. 2.0

결손 가정 아이들

학교 앞 전도를 통해 만난 아이들은 매우 거칠었다. 예의도 없었고 사회성도 부족하여 교회에 오기만 하면 늘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늘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유를 찾아보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았다. 이런 아이들이 오다보니 자연스럽게 사역의 방향도 그에 맞춰가게 되었다.

이후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아동일시보호소도 알게 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지금도 예수소망교회는 미자립교회이고 선교헌금이 없으면 유지가 어렵다. 그렇다고 어려운 이웃들을 모른 채하며 지낼 수는 없었다. 후원받은 헌금을 또 쪼개어 이웃들을 섬기고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게 되었다. 때로는 반찬도 만들어서 나눠줬다.

4. ver. 3.0

제이하트 선교단체 설립

2020년. 처음 경험해 본 팬데믹을 겪으면서 모든 사역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언론들의 영향으로 교회의 인식은 매우 안 좋아졌고,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서 예배를 나오던 아이들은 부모의 반대로 못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이들은 집에서 게임과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었고, 청소년이 되면서 친구들과 세상의 재미를 맛보며 교회와 떨어진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재정비의 시간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달려왔던 사역들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그리게 되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했다. 하나님께 선한 길과 방법들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였고,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마침내 “제이하트”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5. 왜 선교단체인가?

복지기관이 아니라 선교단체로 세우다.

지금 하는 사역들은 복지사역이다.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그룹홈 등의 전문 복지기관으로 세워나간다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재정이다. 처음에 시작은 어렵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받으며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 인건비부터 운영비 등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원 받게 된다.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은 복음을 전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 또한 복지기관이 되는 순간 처리해야 할 서류가 너무나 많아진다. 앞서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류에 치어서 사역도 목회도 어려워 졌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었다.

여러 이야기를 듣고 어렵지 않게 결정하게 되었다. 복지사역이지만 선교단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다른 이유를 떠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복지사역을 할 이유가 없었다. 눈에 보이는 안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재정도 책임져 주시리라 믿었다. 그렇게 무턱대고 미자립교회가 순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다.

앞서 설명했듯이 제이하트의 방향은 분명했다. 소외된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의 삶을 돌아보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된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러기에 우리의 목적도 분명하다.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6. 제이하트 사역 소개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동행사역

말 그대로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와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다. 아동일시보호소는 부모에게 학대나 방임, 방치 등의 이유로 보호와 격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일시 보호하는 기관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상처가 깊은 시간이다. 처음 보호소를 방문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이들의 눈빛은 너무나 밝게 빛이 나는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아이들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도 보호소에 있는 것을 행복해 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만큼 그들에게 집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일시보호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 바뀐다. 짧게는 1~2회, 길게는 6회 정도 만나게 된다. 가끔은 퇴소했다가 다시 입소하는 아이들도 있다. 퇴소한 아이들 중에는 대부분 그룹홈이나 보육원같은 장기 시설로 가게 된다. 퇴소 후에 SNS로 연락이 종종 오기도 한다.

아이들이 가장 힘든 시간에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된다. 아이들을 붙잡고 직접적인 성경공부를 하거나 양육을 하지는 않지만 교회이고 선교단체이고 목사라는 사람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도 한다.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

1) 반찬나눔 사역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싱글맘, 싱글대디도 많이 만나게 된다. 한부모, 조부모 가정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한다. 아직은 봉사자들이 많지 않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싶다. 그러나 단지 반찬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 함께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잠깐의 행복함과 누군가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이 그들의 삶과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2) 원데이 클래스

아이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각각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콘텐츠들을 경험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다. 또한 싱글맘들의 경우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을 겪는 경우도 많다. 그들에게 하루 숨을 쉬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 외에도 때때로 정서지원을 통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한다.

3) 가구지원 (꿈꾸는요셉 후원)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가구회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게 된 기업에서 결손가정을 추천하면 아이들 가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이다.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결손가정을 소개 받아 추천을 하게 되었고, 새롭게 연결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

다음세대 등대사역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 본적이 있는가? 어두운 바다 위를 향해 본적이 있는가? 어둠은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한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기가 어렵다. 그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대이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다음세대에게 빛으로 길을 밝혀주는 사역이다.

방과 후 사랑 나눔을 통하여 학습을 봐주기도 하며 관심과 사랑을 더해준다. 특별히 관심 있거나 재능이 있다면 발굴하여 더욱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

7. 제이하트의 비전

자립준비청년과 싱글맘들을 위한 주거환경과 일자리 창출

최근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대상이다. 이들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있기도 했다. 이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들이 자립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주거환경과 일자리이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좀 더 저렴한 주거 환경과 함께 의지하며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기다려 줄 수 있는 일자리도 필요하다. 세상의 기업들은 그들을 기다릴 정도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

다음세대 사역은 곧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가는 긴 프로젝트이다. 가정이 세워져야 다음세대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어린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다음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교회학교 재적인원을 늘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믿음이 전수 될 것이다.

8.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다. 하나님은 왜 이곳에 예수소망교회를 세우셨냐고... 1대 목사님이 예수소망교회를 개척하고 2대 목사님 때에 예수소망교회는 지하에서 2층으로 이전하였다. 목사님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갔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라는 마음이었다.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된다. 다음세대 사역도 마찬가지다. 다음세대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다. 나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듯이,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리라 믿는다.

큐티로 연합하는 청년



송헌태 목사
평택기쁜교회

기쁜 청년교회 소개

기쁜 청년교회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평택은 2023년 5월 30일 기준 58만 명이 넘는 인구로 경기도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인구 증가 가운데 20, 30대 청년들의 인구 증가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삼성반도체라는 일자리가 전국의 많은 청년들을 평택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평택 기쁜교회는 큰 교회로 손꼽힙니다. 교회 규모 면에서 해당 지역 안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많은 장년 성도들이 등록하여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청년교회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코로나 이전 70명 정도 주일에 출석하던 청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 40명대로 현저히 줄게 되었고, 많은 교회가 그렇듯 현장예배 출석에 청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과 일자리에서 생활하였기에 주일날 예배 참석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큐티 공동체가 시작되며 자연스럽게 예배 출석과 삼성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조금씩 전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며 현재는 많은 청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큐티공동체 시작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청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초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소그룹’, ‘큐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소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소그룹 큐티 목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적으로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따라 큐티 세미나와 큐티 훈련을 통해 청년 공동체에도 자연스럽게 큐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큐티 소그룹 인도를 위해 목회자가 임원과 리더들에게 큐티 훈련을 시켰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리더들을 온라인(zoom) 큐티 훈련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현장에서 모여 큐티 모임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큐티 소그룹이 정착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바쁜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매일, 매주 큐티 모임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큐티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시작한 것이 소그룹 동아리 모임입니다.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활동들로 모일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축구, 볼링, 달리기, 배드민턴, 서핑, 등산, 영어 공부 등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모임을 만들어 청년들이 교체할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동아리 활동 가운데 큐티 모임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동아리 활동 가운데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모든 모임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예산은 분기별로 한 번씩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즐거워하는 모임이기에 필요한 재정은 낼 수 있는 청년들이 더 내고 재정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은 정해진 회비를 내는 정도로 동아리 활동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부장은 청년 동아리 큐티 모임을 직접 간섭하기보다 간접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형식으로 청년들의 큐티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동아리 리더들을 관리하고 모임을 매주 점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청년들이 원하는 소그룹이 있다면 논의하여 새로운 소그룹 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 가운데 큐티 훈련과 큐티 나눔을 필수로 하도록 하고 있



줌 큐티 모임

습니다. 그렇게 소그룹 큐티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전도 효과와 주일 예배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역팀을 말씀안에 하나 되도록 큐티 진행

소그룹 모임과 함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소그룹이 사역팀으로 불리는 ‘임원’, ‘찬양팀’, ‘새가족’팀입니다. 임원은 전반적인 청년교회의 프로그램 준비와 청년 심방, 소그룹 리더들을 목회자와 함께 관리합니다. 찬양팀은 주일 예배를 전적으로 맡아 준비하며 토요일마다 큐티 모임으로 시작하여 찬양 연습과 교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가족팀은 매주 새롭게 등록하여 오는 청년들을 4주간 관리 및 교육하고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팀은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랜 사역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의견의 대립과 갈등들이 청년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큐티를 선택하여 사역팀 큐티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현재는 말씀을 통해 사역팀들이 서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역팀 팀원들은 교회에 핵심이 되는 청년들로 목회자가 직접 관리하여 큐티와 제자 양육을 진행하며 사역하는 청년들이 자신을 늘 점검하고 큐티에 힘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하반기 별로 사역팀 위로회를 진행하며 사역 팀원들이 지치지 않



영어회화 큐티 동아리 모임



이런 저런 달리기 큐티 동아리 모임



배드민턴 큐티 동아리 모임

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는 사역들

기쁜 청년교회는 여름, 겨울수련회 때 특별헌금을 통해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후원금을 전달합니다.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교회 안의 전통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흘려보내는 사역을 통해 청년공동체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여름은 국내 단기선교, 겨울은 해외 단기선교를 통해 소수의 청년들을 훈련시켜 직접 선교지에서 선교활동을 진행하도록 격려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 문제에도 동참합니다. 감리교에서 정한 환경 주일을 지키며 6월 한 달간은 다양한 환경캠페인(줍깅, 일회용품 x, 분리수거 등)을 진행합니다.

팀별 헌신예배

기쁜 청년교회는 12월부터 다음 연도 회장과 리더들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12월에 새로운 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새로운 팀 시스템이 진행되기 전 10~11월 두 달간은 팀별 청년들이 모여 직접 예배를 준비하고 디자인합니다. 이때 새로운 리더들을 찾고 세우고 훈련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 됩니다. 팀별 헌신예배는 팀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서 서로의 달란트를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모인 큐티 모임과 동아리활동사진 등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헌신예배를 통해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연도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는 귀한 헌신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큐티하는 청년교회로

큐티 소그룹이 정착된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청년교회 목회자가 바뀌며 2022년 3월부터 큐티 중심의 사역들을 진행하였고 현재 10개의 큐티 소그룹 모임, 7개의 동아리 큐티 모임(축구, 볼링, 달리기, 배드민턴, 서핑, 등산, 영어)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7월 평

균 예배 출석인원은 120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큐티 소그룹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큐티는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깊이 본다거나 적용이 좋다거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모일 때마다 같은 말씀으로 모이는 큐티의 습관화에 현재 청년교회는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 소그룹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큐티 소그룹 모임에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전도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 정착한 새 가족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유를 ‘교제’보다는 ‘말씀 나눔’(큐티)라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모습을 보며 교제 중심의 청년 공동체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갈급하고 원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청년교회는 내년에는 대학부와 직장 부를 나누어 예배 모임과 큐티 활동을 더 활성화하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큐티 멘토제를 도입하여 청장년 부서와 청년부의 연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큐티하는 청년으로 세워지고 큐티하는 소그룹 큐티하는 청년교회로 기쁜 청년교회가 나아가길 소망하며 앞으로도 기쁜 청년교회는 큐티 사역과 모임에 더욱 힘쓰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선교 버스킹 전도



제주선교 해안가 줄기



서핑 큐티 동아리 모임

강남선한목자교회 사례를 통해보는 세대통합예배



엄재현 목사
강남선한목자교회

1. 선한목자교회에서 다음세대 목회

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십년 동안 선한목자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사역하였습니다. 10년간 선한목자교회가 부흥하는 것, 또한 교회 안에서 다음세대 사역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2011년 교회학교 평균 800명 정도 출석하였는데, 2021년에는 1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세대 사역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으니 저에게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역시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대부분의 메가 처지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나오다 보니, 동질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 대표로 교회에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함께 앉아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라는 의식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원에 비하여 사역자의 수가 적다 보니 목양이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선한목자교회 사역의 후반으로 갈수록 저는 학생들과의 접촉점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주로 교육

전도사를 관리하는 것이 저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들에게도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진 학생들을 주중에 목양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주로 사역은 예배와 행사 위주가 되었습니다. 여름과 겨울 계절 행사들과 매 주일 예배를 통한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흡족한 목회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 교회학교 목회의 트렌드 변화

제가 처음 전도사로 교회학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전도와 예배가 강조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학교 앞으로 전도를 나갔고, 또 그만한 열매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등교가 사라지면서 이러한 학교 앞 전도가 위기를 맞았고, 현재는 사회적인 풍토와 맞물려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어린이 사역에 특화된 교회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적인 예배가 도입되었습니다. 윙윙, 메빅, 와우큐키즈 등등. 그러나 현재도 이러한 형태의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예배 준비에 들어가는 교사들의 헌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 교회들로부터, 또 한국교회 교회학교 내부의 자성으로부터 가정 연계 사역이 강조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세대 사역은 일주일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에 불과 합니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에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영적성장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지만,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자료들을 통해 가정에서 일정 부분 신앙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것도 참여율 50%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으로 올라가면 더 어렵고, 청소년기에는 거의 안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3. 강남선한목자교회에서의 목회

저는 2022년 지금 사역하고 있는 강남선한목자교회의 담임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강남선한

목자교회는 2013년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개척된 교회입니다. 10년이 되었고, 저는 2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 제가 가진 다음세대 사역의 비전을 따라 여러 성도들이 강남선한목자교회로 오셔서, 우리 교회는 교세에 비하여 다음 세대가 비교적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른 출석은 190명 정도에 교회학교 학생은 80명 정도가 출석하였습니다.

감사한 상황이었으나, 곧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역자가 저 외에는 없었고, 교회의 부채가 많아 사람을 더 쓰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은 통합예배였습니다. 또한 통합예배는 저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다음세대 목회를 하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 설교는 저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또 어린이 설교를 할 때도 교사들도 동시에 은혜를 누리야 한다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한다면 세대통합예배를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한 신앙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한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잠깐이라도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가정연계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학교 사역에서 메가처치가 아니라 지역교회가 가지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메가처치는 충분한 자본과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학생들 사이에, 어른들과 학생들 사이에 관계망이 형성됩니다.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반대로 누가 누구의 부모인지 교우들이 서로 아는 당연한 일이 메가처치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망이 자녀들의 안정감 있는 영적인 성장에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4. 강남선한목자교회의 세대통합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세대통합예배는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로 나뉘어 집니다. 어린이 예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청소년 예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하의 학생들은 별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세대통합예배의 형식 자체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찬양 선곡에 아이들을 조금 배려하는 것, 한달에 한번은 학생들이 대표기도를 합니다. 학생들이 예배 중에 간증을 하기도 하고, 찬양팀이나 성가대에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합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설교입니다. 어

린리와 청소년 그리고 장년들이 공감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중요한 방식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는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에게나 유용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들 경우에는 설교의 메시지는 기억 못하고 예배 정도만 기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듣고 있으니 메시지가 들리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니 예배의 분위기는 훨씬 활기차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들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합니다. 때로는 엉뚱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 아이들이 합니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예배시간 내내 찬양을 하지않는 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학교에 보내면 알아서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를 드리보면 우리 아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은 청소년들은 주로 자신이 들은 말씀으로 부모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의 잘못을 눈감아 주시지 않나요?” 적용을 자신에게 하지 않고, 부모에게 한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통로가 열렸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참고로 예배 후에는 어느 교회학교처럼 교사들과 각 연령에 맞추어 분반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예배이지만 교회학교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은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분반공부의 내용은 그 날 말씀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적용할 부분을 나누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세대통합예배의 어려움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세대통합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육 전도사를 구하는 일이 어려워진 형편에 불가피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세대통합예배는 어른 예배에 아이들을 얹혀 놓는 형태가 됩니다. 혹은 아이들에 맞는 설교를 짧게 하고 아이들을 내보낸 후에 어른을 위한 설교가 다시 진행되는 형태를 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대통합예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이들 예배에 어른들이 참여하

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에게 충분한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도 이 부분이 숙제입니다. 저의 대안은 첫째, 학생들과 장년들이 공감하는 접점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해서, 어린이를 위한 설교이지만 어른들이 듣기에 유지하지 않는 절충점을 찾는 것입니다. 매주 매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우리 교회 주중에 금요성령집회가 있습니다. 금요성령집회는 어른들 중심의 예배로 장년들에 적합한 깊이 있는 말씀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요성령집회의 장년 출석은 주일에 1/4 정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안으로 매주 속회 모임의 나눔 내용을 주일 설교가 아니라 성령집회 메시지를 가지고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속회에 참여하려면, 먼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정신없이 담임목회를 시작한지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회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두 자녀를 키우면서, 다음세대를 목양하는 일은 전보다 더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누구도 뽐족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떤 교회가 어떤 사역에 대해 가장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보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누가 뭐래도 중요한 곳에 돈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임목사가 뭘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담임목사가 직접하는 사역입니다. 대부분 그 일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세대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임목사가 직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신으로 세대통합예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2박3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때, 모든 세대가 함께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드린 은혜와 감격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둘째 아들을 안고 펄쩍펄쩍 뛰며 찬양하였습니다. 저는 다음세대에 그 감격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가지 가능성으로 강남선한목자교회의 세대통합예배를 소개하였습니다.

건강한 교회 문화가 전 세대의 부흥을 이끈다



박형민 목사
주향교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주향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 고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는 어떤 모습일까 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목회는 어떤 모습일지에 관한 질문이기도 했다. 이 물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회 철학을 세울 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신 세 가지의 단어가 있었다.

“예배자, 전도자, 제자”

주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신실한 예배자였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였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간 제자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최고의 칭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향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담임목사는 성도들에게 묻고, 성도들은 그 물음에 대답하며 비전을 선포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예 저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까?” “예 저는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저는 제자입니다.”

예배 때마다 비전을 선포하고, 교회는 이 비전을 향해 어떤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제자의 양육 공동체로 세워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고 있다. 주향교회는 여기서 출발하였고 그 대답의 결과로 부흥해 왔다. 주향교회 담임자가 된 지 벌써 23년이 되었다. 그동안 교회 건축을 두 번째 하고 있다. 성도 30~40명으로 시작했던 목회는 이제는 평균적으로 1, 2부 예배 400명, 3부 청년예배 90명, 중고등부 예배 학생 50명 -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불신자의 자녀들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 중이다 - 아동부 40명, 유치부 30명이 출석하는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주향교회는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주변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된 지역도 아니다. 주향교회는 산 밑에 있는 작은 빌라촌에서 시작했고, 늘 구도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급성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완만하게 한 걸음씩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부흥이 주향교회에 주신 목회 비전과 그것을 구체화한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가 성장하는 동력으로서 예배자, 전도자, 제자에 관하여 주향교회의 사례를 나누고자 한다.

1.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시 29: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말 1:8절)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예배가 사람에게도 드리지 못할 눈먼 희생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주향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지 자문하며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주향교회 주변에는 교회가 많이 있다. 관계 전도가 아닌, 이사 등의 다양한 이유로 수평 이동한 분들에게 왜 주향교회를 등록했는지 물으니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예배’라고 했다. 예배에 답이 있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도, 영혼을 머무르게 하는 힘도 예배 가운데 있다. 성도는 좋은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좋은 예배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게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에 대한 목회의 제1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주향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슬로건들이 있다.

영성은 촘스럽게, 문화는 세련되게

주향교회 예배는 70~80년대의 한국교회 대부흥의 시기와 같은 ‘열정적 영성’을 추구했다. 찬양, 기도, 말씀 안에 에너지가 쏟아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박수치며 울동하며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30분 이상 기도하고, 설교 말씀은 주일 40분, 주중 1시간을 전하며 열정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예배의 영성을 담은 문화의 그릇은 세련됨을 추구한다. 예배 음악도, 영상도, 모든 교회의 데코레이션과 팜플렛도 정성을 담아 세련되도록 노력했다. 물론 대형교회들의 전문적인 솜씨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작은 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예배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 성령 수양회 : 성도에게 축제와 같은 예배와 도심 속의 기도원 같은 집회를 선물하고자 공휴일이나 주일 오후를 통해서 기획한 특별예배, 100명 선착순 모집, 일 년에 3~4차례 시행.
- 캘리그래피 찬양집회 :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특별한 찬양예배. 다양한 컨셉으로 전 세대가 즐겁게 참여하는 찬양집회.

약점이 없는 예배, 강점이 있는 예배

예배의 모습 안에 약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리며 사람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어리숙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하지 않던가? 주향교회의 각 예배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만들어 가는 나름의 프로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사역자들을 질책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

는다. 예배가 교회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향교회만의 강점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대형교회의 예배의 세련됨을 따라갈 수 없다면, 담임 목회자 자체가 강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설교에 집중했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설교만큼은, 대형교회와 개척교회가 같은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형교회 목회자의 바쁜 일정보다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 설교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예배에 대한 고민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였고 이 노력이 결국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예배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고, 주변 목회자들에게 섬기는 교회의 예배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예배가 주향교회의 예배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의 예배가 되길 소망한다.

2.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에 대한 모든 교회 성도의 고백은 똑같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교회가 실제 전도를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다. 요즘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바쁜 일상 가운데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주향교회가 지향하는 전도의 실체는 ‘소그룹 초청잔치’와 ‘대그룹 초청잔치’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전도하지는 슬로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1, 2회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전도자로서의 목표였다.

소그룹 초청잔치

소그룹 초청잔치는 ‘제자들 교회’ 김동현 감독님께 영향을 받았다. 노방전도보다 관계 전도

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주향교회의 목자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소그룹 초청잔치를 도 전했다. 한 목장이 대신자를 작성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간증과 복음을 전하는 형식은 비슷하다. 제자들교회와 크게 다른 점은 대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한다는 것이다.

교회를 이전하고, 5층을 카페로 만들어 전도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소그룹 초청잔치를 가정에서 하려니 집을 오픈하는 것도 주방과 그릇에 관한 문제도 부담스러워해 장소를 교회로 했다. 장소를 어디로 하든지, 이미 대상자들도 이 모임이 전도하려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에 기왕이면 한 번이라도 교회에 실제로 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역분담 - 초청대상자 찾기 (20일 기도 카드) - 데코레이션 및 음식 준비 - 환영 - 포토 존 - 초청자 소개 - 레크리에이션 - 식사 및 교회 영상 시청 - 특송 및 간증 - 축복기도 목자 - 선물 증정과 예배 초청

- 소그룹 안에서 초청잔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3, 4년 이상 끈기 있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초청잔치를 하고 나면, 주중 예배를 통해서 후기 발표를 하고 칭찬하며 기도해준다.
- 여자 장년들은 데코레이션과 음식 준비에 마음이 열려 있지만, 남자 장년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남자들을 위해 옥상에 바비큐장을 만들고 남자 장년들의 초청잔치를 하기도 했다.
- 장년만을 위한 초청잔치가 아니라, 주향교회 성도 전체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다. 음식이나 내용이 바뀐다면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 음식을 준비하는 ‘루디아팀’, 특송이나 특주로 섬기는 헌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 교회 내에 소그룹 초청잔치가 가능한 공간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 곳을 사용하여 소그룹 초청잔치를 한다.

대그룹 초청잔치

대그룹 초청잔치는 전통적인 ‘새 생명 전도 축제’라고 말할 수 있다. 소그룹 초청잔치를 통해서 교회에 발걸음 했던 이들을 다시 한번 예배에 초청하기 위해 매년 11월쯤에 하는 전도 잔치이다. 교회는 달란트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일상의 예배보다 구도자를 위한 예배를 준비하며 이 예배 안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 제대로 된 설교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초청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는 극히 소수이다. 대부분 사람이 한번 왔다가,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목표를 정했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자’

30~40분 설교 말씀 시간에 최대한 세련되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점이 성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요즘 초청잔치에는 농촌에 계신 부모님을 미리 토요일에 모시고 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시키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들려주겠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 당일 2회 11시, 2시의 초청 예배를 드린다.
- 공연을 위한 초청잔치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한 초청잔치이다.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까지 함께한다.
- 장년부가 대그룹 초청잔치를 하는 것처럼,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다양한 대그룹 초청잔치를 기획하고 시행한다.
- 소그룹 초청잔치가 목자들이 이끈다면 대그룹 초청잔치는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난다.

전도는 실재가 중요하다. 주향교회도 교회 주변에서 노방전도를 하지만, 그전 전도부에 국한된 사역이기에 이것이 전도의 실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주향교회의 모든 성도가 전도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참여하는 실제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했고, 이것이 소그룹과 대그룹 초청잔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 성장해서 오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며, 목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딤후 4:5~6)

제자는 양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훈련 시키는 실제적인 노력이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요, 이 일에 헌

신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목표이다. 목자와 교사들에게 양육자가 될 것을 도전하며 매년 양육자반을 열고, 새로운 양육자들을 세워가고 있다. 현재 주향교회는 양육자 밴드에 50명 이상의 성도가 양육자로 활동하고 있다. 매주 양육을 하며, 밴드에 양육의 모습을 담아서 보고한다.

말씀 훈련

개인과 일대일, 소그룹 양육과 대그룹 양육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 훈련을 시키고 있다.

- 개인 주향큐티 : 교회가 자체 제작한 큐티를 통해서 전 교인 큐티에 도전하고 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같이 묵상하고, 새벽예배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본문을 설교한 내용이 설교 밴드에 올라가게 된다. 성도들은 자신이 큐티하고 있는지를 각 목장의 단톡방에 보고한다.
- 개인 200일 성경 통독 :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주향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성경 본문을 200일로 나누고 하루에 30분 분량의 말씀을 읽고, 녹음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점검한다. 현재 7차 성경 통독이 진행 중이며 15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일대일 제자 양육 : 평신도 양육자들이 '두란노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해서 16주 성도들을 섬기는 양육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 평신도 양육자들이 8주 과정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양육 과정.
- 바이블 트레이닝 : 평신도 양육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전신 갑주의 설교를 바탕으로 교재를 구성해서 7주 과정으로 양육함.
- 예수님의 사람 : 이은화 사모가 이끌어가는 그룹 성경 공부
- 어 성경이 읽어지네 : 부교역자가 이끌어가는 그룹 성경 공부
- 뉴라이프 : 박형민 목사가 이끄는 16주 그룹 성경공부 6~8명, 새벽반, 오전반
- 주향 성서대학 : 박형민 목사가 이끌어가는 대그룹 성경 공부 30~40명. 평일 오후반

기도 훈련

-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예배를 통해서 설교 후에 30분 이상 통성기도 할 수 있는 기도 훈련 시행
- 기적의 20일 : 박형민 목사의 설교 20편을 선정해서 40명의 지원자를 선발해서, 20일간 (4주 월~금)의 기도훈련을 매일 저녁 실시함.
- 응답 기도회 40일 : 15년간 실시하고 있는 8주간 (월~금) 매일 저녁 8시에 이루어지는 기도 훈련, 매일 예배하고 30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보냄. 처음엔 출석을 위한 행사와 같

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15년을 지속하며 이제는 주향의 성도들이 기대하는 문화가 되었음. 기도훈련과 더불어 40일을 통해서 한 권의 성경을 40번 분량으로 강해하는 성경 공부 시행

교회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목회의 본질인 예배, 전도, 제자 양육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부흥하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은 목회자의 과제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교회 부흥을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성화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 이 글을 통해서 교회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회의 변화



박인선 목사
광천교회

I. 성장을 위한 출발

광천지역은 한 때 인구 3만이 넘게 밀집해 사는 지역이었지만 점점 쇠락해 지금은 상업적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천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본국에 돌아가 자신이 믿게 된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면 1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를 기획했으며, 필리핀 현지 목사님을 담당사역자로 청빙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예배를 드리게 시작했습니다.

II. 성장을 위한 변화

영어예배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들이 한국에서 들어와 잘 정착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글교실을 개설하여, 상담전문가를 세워 다문화가정상담을 시작했



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중언어교실(어머니 나라 언어 배우기)을 개설하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영어 예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영어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인 11시에 본 건물 바로 옆에 마련된 교육관에서 같은 시간에 드리었습니다. 영어예배는 단숨에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Ⅲ. 교회학교의 성장

영어예배가 부흥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회의를 거쳐 9시에 드리던 교회학교 예배를 11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였습니다. 11시에 영어예배를 드리러 오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기존의 아이들을 한곳으로 모아 함께 교육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예배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초청해 들어오도록 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을 바꾼 것만으로 교회학교가 부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관심과 헌신이 있었고, 그 많은 정성과 노력을 통한 교회의 생태적 변화가

교회학교의 부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광천뿐만 아니라 많은 농어촌지역의 교회들이 교회학교를 포기하고 있다고 듣습니다. 저희 지역도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가 제가 아는 정보로는 우리교회를 제외하고는 딱 1군데만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젊은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다고 아우성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교 앞에 가보면 아이들은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려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면 교회학교는 아직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목적이 이끄는 교회교육



정지혜 목사
개운교회

선명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이 신념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살아갈 든든한 바탕과 원동력이며, 혹여 넘어져도 다시 돌아가고 다시 일어설 마음의 고향이다. 그래서 신념이 없는 이들은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교육이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앞에서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른바 종교적 신념을 갖도록 돕는 것 아니겠는가. 기독교 교육학자 토마스 그룹은 기독교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나는 동의한다. 창세기 18:19(새번역)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에게 수많은 자식과 땅과 재물을 주신 것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도록 가르치라고 자손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옳고 바른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서의 땅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시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고,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그래서 약한 자를 향한 강한 자의 횡포가 당연한 듯 여겨지는 욕망으로 뒤틀린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 권력과 죽음에 굴하지 않고, 옳고 바른 일을 선포하였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보다 선명한 목적이 그를 이끌었던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었고, 많은 이들은 그 표지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개운교회 초등부 주제 및 커리큘럼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른다. 제자는 모름지기 스승의 길을 따르는 자이다. 스승이 품었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스승이 걸었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한다. 교회교육은 스승의 꿈과 길을 보여주며,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이다. 나 또한 그 자리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우리 초등부와 살아낼 새로운 한 해의 주제를 세우는 일이다. 이 일이 부담이 되는 것은 1년의 모든 교육활동과 커리큘럼이 그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커리큘럼은 외부로부터 오는 지식의 내용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에 응답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린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가 되도록 돕고,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자가 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를 자신의 삶에 형성해 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교육의 커리큘럼이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교회교육에서는 어린이들이 교회 마당을 들어서서 순간부터 예배를 포함한 모든 순간이 커리큘럼이다.

그래서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와 절기에 맞추어 예배를 매년 새롭게 디자인한다. 또한 주중에도 주제에 맞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 노력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들에게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아브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처럼, 예수님이 선포하고 살아냈던 삶처럼 선명하고 분명한 목적이 하루의 삶을 의미있게 하며, 그 은혜와 감사가 예배를 기대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언어가 아닌, 부서를 이끌어가는 주제이지만, 정작 구성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주제가 아닌, 구체적인 삶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주제가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학교를 다니

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주제가 필요하다. 삶의 의미가 없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것처럼, 신앙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단지 교회학교에 재미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갖도록 도울 때 쉽게 꺾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어린이들에게도 진지한 삶의 의미와 신념이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 교회 초등부 예배는 특별한 재미요소가 없다. 오히려 설교시간은 30분 정도로 길고, 가끔은 어른 예배보다 늦게 끝날 때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즐거워한다. 감사하게도 교회 오기를 좋아한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는 것을 기뻐한다. 기본적으로 개운교회 교회학교의 목표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학교”이다. 지금 당장 출석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양육해내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낸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들이 삶의 여정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우리 교회 초등부의 지난 5년 주제는 다음과 같다.

“굿모닝 나의 하나님” (2019)

2019년의 “굿모닝 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배우는 코람데오의 어린이 버전인 셈이다.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침대 머리맡에, 책상 위에, 또는 방문이나 화장실 거울에 ‘굿모닝 나의 하나님!’을 적은 메모지를 붙여놓고 매일 아침 하나님과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을 권면했다. 실제로 아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천장에 ‘굿모닝 나의 하나님!’을 붙여놓고, 하나님과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감사한 DAY”(2020)

2020년 말 그대로 “감사”가 주제였다.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나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이 감사한 날들이라는 것을 배운다. 이를 위해 감사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작고 사소한 감사일기를 매일 적는 것이다. 사실 매일 감사일기를 적다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 대부분이며 특별할 것 없는 날들에 감사를 찾는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 특별할 것 없는 감사의 내용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일상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생명의 말씀,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2021)

2021년은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해였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먹어야 하는 양식임을 알려주고, 매일 QT할 것을 권면하고, 주일 예배의 설교도 그날 주일의 QT본문으로 설교하면서, 해당 본문의 성경을 강해하기 시작했다. 영상, 지도, 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와 자료들을 활용해 성경의 역사적 배경, 고고학적 해석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 등을 설교를 통해 전달했다. 그리고 분반시간에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그날 주일의 QT를 함께 진행하면서 설교에서 들은 내용을 복습하도록 진행했다. 한 권의 성경을 끝내면 그 부분의 그림성경을 읽거나 필사를 진행했다. 2021년은 코로나가 여전한 해였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이 QT와 그림성경읽기, 필사들을 열심히 해줘서 필사 전시회를 열 수 있었다. 2021년에 시작한 QT와 설교, 분반의 방식은 아이들이 익숙해져서 주제가 바뀐 다음 해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흠어져서 예배해요”(2022)

코로나를 지나오며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 버렸고, 여러 나라에 흠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겔 11:16)고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그들이 있는 여러 나라에서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자리 어디에서든 친히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처럼 새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렸다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흠어져서 또다시 매일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우는 한 해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모이는 예배'라고 정하고, 모이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흠어짐 기도'와 '흠어짐 찬양'을 함께 부르며 이른바 '흠어짐 예배'로 파송되는 시간을 가졌다.

흠어짐 예배는 1. 감사 예배 (감사일기쓰기) 2. 말씀 예배 (QT) 3. 찬양예배 (매일 찬양 1곡 이상씩 듣고 플레이리스트 적기) 4. 가정예배로 나뉜다. 사실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지만, 주제에 따라 매일 드리는 감사와 매일 읽는 말씀, 찬양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샬롬, 샬롬, 샬롬!(feat. 샬롬지킴이)”(2023)

2023년은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져가는 세상에서 더욱 그 나라를 소망하며 샬롬을 노래하

는 샬롬 지킴이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진행하고 있다. “샬롬, 샬롬, 샬롬”은 세 가지의 샬롬을 의미한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사람)과의 샬롬, 자연과의 샬롬이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위하여 매일 QT를 계속하며 말씀을 묵상한다. 두번째 이웃과의 샬롬은 나 자신과의 샬롬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샬롬 노트”를 작성한다. 샬롬 노트는 매일 “오늘의 감사한 일, 오늘 용서할 일(사람), 다른 사람의 샬롬을 위한 기도”를 적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샬롬 노트를 통해 샬롬을 지키고 노래한다. 세 번째 자연과의 샬롬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책임이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닐OPP 봉투에 제공되던 간식을 천으로 된 파우치 이른바 “샬롬 주머니”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간식을 먹고 버리면 그만인 비닐과 다르게 샬롬 주머니는 간식을 먹고 난 후 다시 교회에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계속해서 간식을 담아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한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 매주 50장, 연간 2000장 이상의 비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과 나누고 난 후, 어린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샬롬 주머니를 차곡차곡 모아 온다. 또한 사순절 기간은 탄소 지킴이로 매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6월 둘째 주 환경선교주일을 지키며 자연의 샬롬을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이 샬롬 지킴이의 신앙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어린이가 어린이를 선교하는 교회학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선교이다. 그러나 선교는 대부분 어른들의 몫으로 여겨진다. 어린이들이 물질도 없고, 선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교회학교의 모든 것이 커리큘럼이라고 했듯이, 교회학교에서는 이 선교도 커리큘럼 중 하나가 되어야 어린이들이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 외에 초등부에서 5년째 케냐의 키베라 감리교회의 교회학교, 홍콩 어린이선교협회, 에콰도르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다. 첫 해에는 한군데였지만, 점차 늘려 세군데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또 다른 한 곳을 후원하기 위해 기도 중이다.

우리 초등부의 선교후원이 특별한 것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해외의 어린이들을 선교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을 함께 준비해오는데,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초등부 예배를 통해 드린 선교헌금은 교회의 재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선교지로 보내진다. 선교사님들은 분기마다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기도편지를 보내주시고, 한국에 들어오면 선교보고 예배도 함께 드린다. 어린이들은 선교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을 만나 선교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한다. 또한 달란트 시장을 할 때면 우리 어린이들은 선교지를 위한 선물을 한 가지 이상씩 구입하여 선교지로 보낸다. 그러면 선교사님들께서 선물을 나눠주시고, 사진을 찍어 공유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한다. 어린이주일, 사순절 등의 절기에는 동전저금통을 이용해 모은 동전으로 케냐 친구들의 급식을 지원하기도 하고, 대강절에는 용돈을 저금통에 모아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핸드폰을 성탄절 선물로 보내거나(2021), 그림 성경책을 보내는 사업(2022)에 동참한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은 그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고도 받드시 해주신다. 주일에 봉헌기도를 하는 친구는 케냐와 중국 에콰도르에 있는 친구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린이 선교사로 성장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어릴 때부터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선교사의 꿈을 꾸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복음의 선순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배우고, 자신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며, 자신의 나눔과 기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를 몸소 배운다. 또한 초등부의 선교를 통해 교회의 여선교회에서도 연말마다 선교현금에 동참해주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확장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홍콩의 선교지로 비전트립을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회복과 기쁨을 먼저 누리는 교사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모든 일에 기쁘게 동참해주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 주중에 가정에서 해야하는 말씀묵상, 샬롬노트, 가정예배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다. 특별히 학교 앞 전도를 한다거나, 새친구 양육을 하거나, 친구초청잔치를 하지도 않는다. 그 흔한 교사 월례회의도 1년에 2-3차례 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현재는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많은 어린이들이 출석을 하면서, 교회 오기를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며, 올 여름성경학교는 50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였다. 또 교사들이 전폭적인 헌신과 지지가 함께 하고 있다.

교역자로서 교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겨주시듯 어린이들을 정말 기쁨으로 격하게 환영해주는 것, 자신이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꼭 연락하며 심방함으로 선생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그거면 충분하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환영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 이 나를 환영하고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그 어린이는 누군가를 환영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나의 요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계신다. 바라지 않아도 먼저 휴가를 내서 성경학교에 참석해주시고,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아낌없이 아이들에게 내어주고, 매일 걸려오는 아이들의 전화도 기쁨으로 받아주며, 생일이면 떡볶이 파티를 열어주고, 반 티셔츠를 맞춰주고, 타지역에서도 매 주일 교사로 섬기러 와주고, 평일 모임에도 참석해주며, 결석한 어린이 집 앞까지 찾아가 간식을 전해주고, 교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계시니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교사들이 이렇게 헌신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교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시길 기도했다. 중요한 것은 초등부에만 필요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 선생님께서도 초등부가 필요한 분이길 바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부에서 함께 예배하며 예배와 봉사의 기쁨을 통해 선생님이 먼저 회복되기를 바랐다. 교사를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하며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아이들과 예배만 함께 드려주기를 권면하는 것이 교사를 발굴하는 기준 중의 하나였다. 교사를 하며 회복과 기쁨을 누린 교사는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사들에게 섭섭한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선생님의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에 응원하고 위로하며 기도해줄 뿐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섬겨줄 때 칭찬해주며 다독여주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하는 교사 교육방법이다.

Alive 교회학교 교사 성경통독

코로나를 지나며 흩어져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며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전체 교사들이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말씀의 힘을 교사들이 먼저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갯피플 성경읽기(공동체성경읽기) 앱을 통해 동일한 성경통독 플랜을 세우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날 읽어야 할 말씀의 범위를 공지하면, 선생님들이 말씀을 읽고 은혜받은 성경구절을 하나씩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시작한 성경통독이 벌써 3년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1년에 2독을 하였고, 매년 20여명의 교사들이 성경을 완독하였다. 성경을 완독한 선생님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해드리기도 한다. 감사한 것은 성경을 읽는 선생님

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였고, 개별부서 중심이었던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공간에서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상급 부서로 동반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연동이 수월해지면서 더불어 교회학교가 단단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교회 내 교회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훨씬 많은 강원도지역에서 교회학교에서 마음 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와 늘 기도해주는 부장님,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다. 교회학교에는 예산도 아끼지 않으시고, 담당 교역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 자유를 맡겨주신 덕분에 자유롭게 날개짓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이러한 선한 연합을 통해 자격없는 자 마저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조금 더 선명히 그려보며, 아이들이 살아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기대해 본다.

녹색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픈 의성서문교회

이 책 목사
의성서문교회



1. 의성서문교회의 시작 그리고 지향

- 2018년 5월 18일 첫발을 내딛은 의성의 유일한 감리교회 ‘의성서문교회’
- ‘작은 자를 위한 교회’라는 가치를 내걸고 교회 개척 - ‘세상의 아랫목 의성서문교회’
- 의성서문교회가 소중히 붙들고 있는 두 가지 가치 - ‘지역공동체’, ‘녹색세상’
-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얻은 깨달음 - 목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구나!
 - 더불어 사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는 곳(지역)에 대한 관심, 딛고 사는 환경에 대한 관심
→ ‘지역교회, 녹색교회’
- 목회사역의 원칙
 - 멋지고 웅대한 꿈보다는 투박하고 소박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방식으로 하자!

2. 지역공동체

- 오이코스작은도서관 운영

- 지역민들의 쉼터이자 마실 / 독서교실, 문화가 있는 날, 의성동요부르는 어른모임, 농부 달장 등 활동 / 녹색도서관 : 생태독서프로그램 진행
- 의성장애인부모회 연대활동
- 담임목사의 지역활동 - 의성향토사연구회 사무국장 / 의성문화원 연구위원 / 의성군지 편 집위원 / 식생활교육의성네트워크(지역 먹거리 운동) 운영위원으로 활동
- 지역 내 외국인노동자들이 의지할 친구 되기 - 상담, 한국어교육, 쉼터 역할 등
-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들어온 풍성한 곡식들과 과일, 물품들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 나눔. 이후 지속적인 교류
- 의성농민회, 식생활교육의성네트워크, 의성향토사연구회,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 등 지역 의 문화, 생명의 먹거리 등을 위해 일하는 제반 단체들과 연대

3. 녹색세상을 위한 소박한 실천들

1) 예배

- 주일예배를 야생화 이야기로 시작
- 예배 중 다양한 신앙고백(감리회신앙고백, 사도신경, 자연신경, 사회신경, 농촌교회신조)
- 주일오후 속회모임 : 찬양예배, 기독교역사탐방 및 지역탐방, 나눔속회, 자연속회(4주), 문 화속회(5주-영화관람), 분기별 평화교육
- 매년 6월 둘째주일을 환경선교주일로 지킴

2) 교육

- 2020년 사순절 묵상 - 교우들과 함께 <지구 이웃과 함께하는 40일 묵상 여행> 묵상
- 2021년 성경공부 - 교우들과 함께 <성서와 환경> 15강 수강(온라인)
- 환경세미나(년 1회 환경선교주일) : 2019년 '기후변화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강사 : 박 순웅 목사 / 동면교회) / 2020년 '기후변화와 시민행동'(강사 :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 / 2021, 2022년 코로나로 인해 외부강사 없이 자체 진행 / 2023년 '녹색신앙, 탄소발자국 지우기'(강사 : 이인미 박사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연구실장)
- 평화교육 실시(분기별):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평화 만 들기 / 2022년 '갈등의 꽃을 피우는 대화 시스템 구축' 라는 주제로 분기별 평화기초교육 (연 4회 / 강사 : 반은기 선생(비폭력평화물결, 평화교회연구소 연구원)

3) 의성서문햇빛발전소

- 교회 옥상을 이용하여 사업면적 100㎡에 19.98kw 산업용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여 전력 생산(2019년 8월 개통)
- 모든 수익은 전액 지역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선교와 구제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의

4) 그밖의 녹색실천들

- 교회와 주변 화단 가꾸기 / 교회공동텃밭 가꾸기
- 일회용을 쓰지 않기, 개인컵(텀블러)를 이용하기, 쓰레기 줄이기, 교회 공동식사 잔반 남기지 않기 실천
- 자원재활용 : 플라스틱 뚜껑, 우유팩, 멸균팩, 폐종이, 폐건전지,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 재활용/재활용 교육 및 체험 : 재활용놀잇감 전시회 - 2021년 10월 25일(월)~30일(토) / 지역에서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펼치는 청년들과 함께 교회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활용 교육 및 체험(패트병을 활용한 염화칼슘 제습제 만들기 등)
- 교회 앞 남대천 플로깅 :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매월 셋째주일 오후 실시
- 서문나눔마켓(아나바다 운동 / 제로웨이스트 운동) - 매월 셋째주 주일 실시
- 오이코스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젝트로 지역민들과 환경문제 공유 : 2022년 5월 ~11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지구별이 건네는 이야기'진행
- 담임목사의 생태노래 만들기

5) 2020 녹색교회 되다

-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에서 선정하는 2020년 녹색 교회에 선정(2020년 5월 26일) / 녹색교회네트워크 연대활동

4. 의성서문 교회학교 이야기

1) 개척 초기

- 2018년 4월 2가정(담임목사 가족과 장로님 가족 9명)으로 시작.
- 초기 모든 예배와 행사는 온 세대가 함께 참여(교회학교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음)
- 아이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교회학교 별도의 모임 필요성 제기

2) 교회학교가 세워지다

■ 2020년 교회학교 태동

-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 연령별 모임을 갖기 시작
- 어린이 모임 '옹달샘', 중고등부 QT모임 → 의성서문 교회학교의 전신
- 엄마와 아기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공간 마련 : 영아부실 공사
- 교회 옥상 햇빛발전소 아랫공간을 아이들 놀이터로 조성 : 대형 트램폴린 설치 / 놀이터

■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예배로 전환하면서 교회학교 활동 위축

■ 2021년

- 영아유치부 예배 시작 : 주일예배 시간과 동일 시간에 영아부실에서 예배 시작
-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
- 의성서문 온가족 여름성경학교 개최(8.15) : 온 교우들이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 진행 / 레크레이션 및 찬양, 여는 예배, 인형극, 학습센터, 자유놀이

■ 2022년

- 의성서문 온가족 여름성경학교(7.24/7.31/8.7) : 3주에 걸쳐 진행 / 온 교우들 참여 / 부서별 부스활동 / 과수원 체험 / 물놀이
- 여름성경학교 이후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예배(온라인/오프라인 병행) :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이후 부서별 분반모임 진행
- 공식적으로 교회학교 출범 : 영아유치부 / 초등부 / 중고등부

■ 2023년

- 교회학교 부서 확장 : 영아유치부(6) / 초등부(8) / 중고등부(6) / 노년부(3)
- 어린이 예배 시작 : 오전 10시 본당에서 어린이 별도의 예배 시작 / 예배-분반공부-활동 / 신앙의 기초 다지기 중점(교회학교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아이들) / 노년부 어르신들과 함께 참여(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코드가 맞음)
- 정기 교사모임, 월별 교육커리큘럼 계획 및 진행, 계절별 학부모들을 포함한 온 가족 놀이 진행(계절별 과수원 체험 / 겨울 얼음썰매 놀이 / 분기별 달란트 시장), 아이들 행사에 언제나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 응원하고 격려해줌
- 어린이 예배를 위해 주일예배 시간 변경

① 문제점 : 기존 어린이예배(오전 10:00) - 주일예배(오전 11:00)

시간에 쫓겨 분반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어린이예배 후 주일예배를 준비하기까지 너무나 분주하고 예배 후 공동식사까지 쉽 없이 사역이 이루어지다 보니 힘듦 토로. 사

모는 주일예배 시간에 언제나 홀로 아이들을 감당해야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를 위해 교회 전체가 의논하게 되었고, 평생 몸에 익은 예배시간이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꺼이 예배 시간을 변경하기로 결정!

② 예배시간 변경 : 주일예배(오전 10시)-차량운행(오전 11시)-어린이예배(오전 11시 30분)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주일부터 예배시간 변경. 현재 잘 정착됨. / 10:00 예배 후 노년부와 중고등부 분반공부, 어린이예배 준비, 교회학교 사역을 맡고 있지 않은 어른들 담소 나누며 교제, 이른 공동식사 / 11:30 어린이예배 후 충분한 공과공부 및 활동 이후 12:30 아이들과 교사들 공동식사 / 시간과 공간적 여유가 생김.

3) 교회에 오고 싶어 부모님에게 조르는 아이들

- 주일예배를 기다리는 아이들 :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고대. 주중 교사들과 SNS나 전화 등으로 지속적인 교류.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라는 인식. 주말 친척이나 가족모임에 가야 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하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부모를 설득하여 기어이 교회에 나오기도 함.
- 교회학교 전도활동은 별도로 없음. 그러나 부모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교회학교 전해짐. 모르는 부모님이 기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를 통해 교회에 나가도 되는지 문의해옴.

4) 주일 교회학교 활동

- 11:00~ 차량운행
- 11:30~12:00 어린이예배(찬양과 율동 - 함께 드리는 기도 - 사도신경(찬양) - 어린이 기도 - 성경이야기(담임목사) - 예물봉헌(찬송) - 말씀챗트 - 광고 - 주기도문)
- 12:00~12:30 분반공부(영아부 / 유치부 / 초등1반 / 초등2반)
* 중고등부(11:30)와 노년부(11:00)는 주일예배 후 분반공부
- 12:30~1:00 공동식사
- 모든 예배와 교육활동에 달란트 부여
- 오후활동이 없을 시에는 오후 1:30에 귀가
- 한달에 1회는 온 교우들과 함께 하는 교회학교 프로그램 실시 : 분기별 달란트 잔치 운영 / 매월 셋째주 남대천 플로깅, 서문나눔마켓 / 팝파티(자연과 벗하기) / 성경골든벨 / 주

기도문 암송대회 / 친구초청주일(달란트 잔치) / 말씀찬트 암송대회 / 물놀이(자연과 벗하기) / 영화관람 / 가을나들이(자연과 벗하기) / 성탄전야제 / 얼음썰매(자연과 벗하기) / 중
고등부 야외모임 등

5. 특별한 것도 없는데...

1) 담임목사보다 나은 교우(교사)들

앞서 이야기했듯 의성서문 교회학교의 이야기는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코로나로 교회학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회학교가 세워지고 잘 운영된 데에는 교사들의 헌신을 꼽을 수 있다. 교회를 개척한 이후 아이들이 없을 때에는 부담이 없었으나 차차 교우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도 하나 둘 생기다보니 교회학교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만 갔다. 난 재미와는 거리가 먼 목사였기 때문이다. 어린이 설교가 제일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담임목사의 주저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상쇄시킬 만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우선시 하는 교우들의 마음이었다. 사실 교회학교를 만들자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이들이 교우들이다. 난 주저했지만 교우들은 스스로 나서 교회학교를 조직하고 계획을 하여 담임목사에게 통보했다. 중간에서 아내의 역할이 컸다. 2023년 교회학교의 별도의 예배가 시작되면서 교회학교는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설교를 맡은 담임목사도 점차 아이들과 호흡하며 설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교회학교 행사가 진행되기까지 교사들은 수시로 모여 의논하고 준비한다. 의성서문 교회학교의 성장 비결에는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교회의 분위기에 있다 하겠다.

2) 교회학교 행사는 무조건 교우들이 함께 한다

의성서문 교회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무조건 모든 교우들이 참여한다. 큰 교회라면 어림도 없는 소리겠지만, 작은 교회라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담임목사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 직접 나서 아이들을 터치하지 않더라도 그냥 곁에서 응원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준다.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이들의 응원과 칭찬을 먹고 자란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에 아이들은 자꾸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믿지 않는 학부모들도 교회학교의 든든한 지원군들이다. 교회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긴다. 행사가 진행될 때 아빠와 엄마가 찾아와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행사에 참여하면서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분위기에 만족해한다. 다른 곳에서는 이

런 때 기뻐다 싶어 아빠, 엄마들에게 교회에 나오시라 강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성서문교회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의성서문교회는 따로 전도활동을 안 하는 교회다. 담임목사는 늘 교우들에게 강조한다.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 사람을 꺾어보면 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에게 대해 신뢰가 생기면 그의 삶이 묻어있는 생각과 신념을 이해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의성서문교회는 수요일마다 예배를 마치면 함께 고백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긍정하고 응원한다. 교회학교와 학부모들은 서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깊은 신뢰의 끈으로 엮여있다.

3) 푸르른 세상을 물려주었으면...

담임목사가 교회학교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 먼저 아이들이 살만한 안전하고 푸르른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드리는 참회의 기도이다.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우리들에게 공급해주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만한, 마음껏 호흡하며 살만한 푸르른 세상을 만들고 싶은 꿈을 늘 갖고 있다. 의성서문교회가 지향하는 녹색세상의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다.

담임목사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어서 자기만 천국가는 이기적인 신앙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 개인 구원을 신앙의 최종목적으로 두는 교회교육은 설 자리가 없다. 지금 교회의 변질된 모습이 이를 방증하고 있지 않은가! 아이들의 신앙이 자기 구원에 매몰되지 않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전우주적 신앙이 되기를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하고 다짐한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미소 가득한, 더불어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노라고... 아이들의 환한 웃음의 불꽃을 꺼뜨리고 싶지 않다.

이를 위해 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 아이들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현재세대이다. 아이들은 현재 행복해야 하며 즐거워야 한다. 자꾸 아이들의 시간을 미래로, 뒤로 미루지 말자! 아이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언제나 현재를 산다. 교회교육이 아이들의 웃음(아이들의 웃음은 웃음의 시원인 하나님의 웃음과 가깝다 할 수 있다)을 되찾아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